

더 작고 간편하게 ... 가전업계 “싱글족 잡아라”

1인가구 늘어 소형 밥솥·청소기 등 두자리수 성장

지역중소업체들 미니 세탁기·냉장고 등 잇단 출시

‘1인 가구’가 증가 하면서 지역 유통업체와 중소형 가전업체에 활기를 주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유통업체와 지역 중소 가전업체에서 이들을 겨냥한 소형 가전을 속속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있다.

여기에 최근 예비 부부들은 혼수로 TV, 냉장고 등 기존 대형가전 외 안방에 낱돌 소형 TV와 화장품·와인 냉장고 등 ‘세컨드(second) 가전’ 시장이 커지면서 ‘소형 가전’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 이마트의 올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가전 전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5.3% 늘었고, 이 가운데 생활가전인 소형 청소기와 면도기가 각 13.2%, 44.8% 상승했다. 전체 주방 가전은 5.2% 역성장했으나 소형 전기레인지르는 64.9% 오름세를 보였고 계절 소형 가전매출도 10.8% 올랐다.

특히 뛰어난 가성비와 이마트 PB 가전 브랜드 ‘러빙홈’도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올초부터 지난 20일까지 러빙홈 소형 집구청소기와 1구 인덕션 매출은 지난해보다 각각 139.9%, 69.9%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소형 가전 매출도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지난해보다 10% 가량 늘었다. 특히 소형밥솥과 소형 핸드 청소기 등의 인기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경향에 맞춰 광주신세계는 이번 봄 개편 당시 실용적인 디자인과 색감의 소형 가전 브랜드 ‘레쥘프’를 입점시키기

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혼부부 선물 ‘베스트’로 꼽히는 것도 미니 토스트기, 소형 전기 오븐, 무선 주전자, 분유포트 등”이라며 “여기에 취미 가전 등 자기 만족을 위한 구매도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만 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중견·중소가전업체도 앞다투어 싱글족을 사로잡기 위한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동부대우전자·대우위니아 등 지역 업체들은 소형 가전으로 업계 양대 산맥인 삼성·LG 사이 틈새 영역을 개척하는 모

양새다.

동부대우전자는 2009년 7kg 용량의 소형 드럼세탁기에 이어 지난 2012년 세계 최초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를 출시, 매년 30%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누적 판매 15만대를 돌파했다.

2010년에 나온 15ℓ 급 초소형 미니 전자레인지르는 7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으며 국내 최소형 김치냉장고(102ℓ)는 공간활용도가 높아 월평균 2000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 회사가 국내에 출시한 미니 가전 판매량은 지난해 200만대를 돌파했고 회사 내수 매출 중 미니 가전의 비중도 25%에 달했다.

대우위니아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위니아 소형냉장고(118ℓ)를 ‘프라우드

S’라는 명으로 처음 선보였다. 곡선의 레트로 디자인에 원도어(1-door) 형태로, 별도 냉동칸 ‘히든 냉동실(12ℓ)’과 ‘신선보관 야채실’, ‘와인랙(일부 모델)’ 덕에 특히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동부대우전자의 김치냉장고보다 작은 100ℓ 짜리 ‘담채 뿌따’도 지난해 출시했으며 최근에는 신혼부부와 1인가구를 겨냥, 독특한 옛 라디오 디자인의 6인용 전기압력밥솥 ‘담채국 레트로’를 선보였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미니 가전에 프리미엄 기능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해 초소형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2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이마트 상무점 가전매장을 찾은 한 소비자가 소형전기밥솥을 살펴보고 있다.

〈이마트 제공〉

브라질발 썩은 닭고기 파문 ... 치킨업체 ‘불똥’

맘스터치·KFC·롯데리아 “판매 중단 계획 없다”

정부 “문제된 제품 수입 없어” ... 소비자 “어떻게 만나”

브라질발(發) ‘부패 닭고기’ 파문이 확산하면서 치킨업체가 전면공공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 등의 이유로 상당수 치킨업체들이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해왔지만 이번 사태로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져 이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치킨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1천개가 넘는 가맹점을 운영 중인 토종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맘스터치’는 순살 치킨과 강정, 일부 햄버거 패티 등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다.

맘스터치는 대표 메뉴인 싸이버거를 비롯해 전체 치킨·버거 메뉴의 약 15%를 차지하는 순살조절치킨, 케이준강정, 강정 콤보, 할라피뇨통살버거, 핫플러스트통살버거 등 6가지 제품에 브라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사는 이번엔 문제가 된 브라질 BRF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비록 정부가 국내에 수입된 브라질산 닭고기 중에는 브라질 내에서 문제가 된 21개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없다고 밝혔지만 여기에 BRF 작업장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우려를 낳고 있다.

맘스터치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순살 치킨과 강정, 일부 햄버거 패티 등에 BRF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판매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본사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KFC는 ‘치킨불고기버거’ 패티를 국내산과 브라질산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제품에는 국내산과 덴마크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판매 중단 등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리치버거’와 ‘순살치킨’ 등의 메뉴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 중인 롯데리아는 자사가 사용하는 브라질산 닭고기가 문제가

된 회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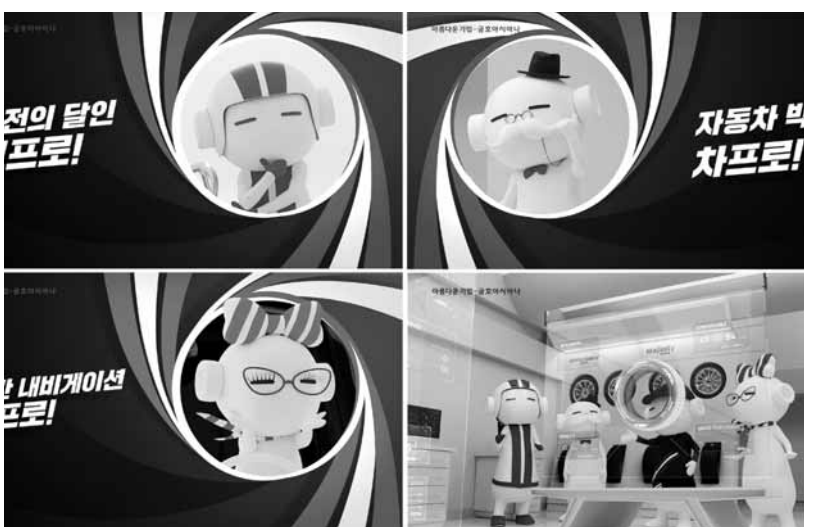
하지만 ‘크런치 치킨’ 메뉴의 패티를 국내산과 브라질산을 혼합해 사용해온 버거킹은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들은 브라질산 ‘부패 닭고기’의 국내 수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를 섣뜻 믿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는 소비자들의 이런 우려를 감안해 비록 매장에서 취급하는 브라질산 닭고기가 문제가 된 BRF 제품은 아니지만 21일부터 모든 브라질산 닭고기의 판매 또는 발주를 중단했다.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물량은 2016년 기준으로 10만7399t이며, 이 중에서 브라질산은 전체의 83%인 8만8995t이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타이어프로’ 신규 TV 광고 런칭

‘도로’ ‘로로’ 캐릭터 활용

인지도 높이고 재미 극대화

금호타이어는 유통전문점 ‘타이어프로(TIRE PRO)’의 신규 TV 광고를 런칭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규 광고는 지난 15일부터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인터넷 미디어 등에서 주요 프로그램 전후에 방영되고 있다.

이번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편은 TV 광고뿐 아니라 CGV 극장 비상대피도 광고를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금호타이어의 캐릭터 ‘도로’와 ‘로로’를 활용해 친숙함과 재미를 극대화한 한편, 타이어 유통전문점인 타이어프로의 성격을 전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신규 광고는 ‘타이어만큼은 프로를 찾습니다’라는 메인 카피를 중심으로 금호타이어의 캐릭터 ‘도로’와

‘로로’가 각각 ‘윤전의 달인 고프로’, 자동차 박사 차프로!, 인간 내비게이션 길프로!로 분해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타이어프로’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주점태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새로운 TV 광고로 ‘타이어 교체할 땐 타이어프로’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타이어프로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전했다.

타이어프로에서는 타이어 관련 점검 및 정비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타이어 추천 및 교체는 물론 공기압 점검, 인지업, 휠 얼라인먼트, 진동 조정, 발란스 등 타이어와 직접 관련된 과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준화된 점검 서비스와 업계에서 알아주는 타이어 전문가들을 배치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구 신세계백화점 개장 100일 만에 1000만명 방문

아쿠아리움·테마파크 갖춰

방문객 절반 타지 사람

대구 신세계백화점에 개장 100일 만에 1000만명이 다녀갔다고 신세계가 22일 밝혔다.

140일 만에 1000만명을 모은 교외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보다 빠른 기록이다.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 지난해 12월 문을 연 대구 신세계는 영업면적 10만3000㎡(3만1200여 평)의 지역 최대 규모 백화점으로, 아쿠아리움과 테마파크, 1930년대 상하이 골목 분위기를 연출한 맛집 거리 등을 갖췄다.

방문객 절반은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왔다. 올해 들어 동대구역 KTX와 SRT의 승·하차 인원은 83% 가량 늘어

나는 등 유통 인구가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백화점 매출이 부진하지만 대구지역 백화점 매출은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0.5% 증가에 그쳤고, 올해 1월엔 2.5% 감소했다.

반면에 대구지역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같은 기간 9.4%, 12.4% 증가했다.

정재영 신세계백화점 사장장은 “대구 신세계는 대구시가 주도한 국내 최초의 복합환승센터로, 지자체 주도의 기업투자 유치 프로젝트 중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신세계는 개장 100일을 기념해 유기 구라모토, 서해경 연주회와 루이즈 부르주아 전시회 등 문화행사와 대형 쇼퍼행사를 펼친다.

/연합뉴스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식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염가금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논,비오는날 9,900원)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주말농장 전용농장 그외 휴식도사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